

금요 수필

배불뚝이의 하루

태어난다는 것은 고향인가
우연일지 모르지만 축복받
아야 할 일이다.
평등, 그리고 불평등을 이야기하기
전에 역사의 사랑과 고통으로 열 달
이 되어야 태어난다. 우리 모두가
세상과 만남의 의미를 가질 수 있
나.
누구나 어릴 적 꼭꼭 숨기고 말하
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그 이
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 이야기를 남
에게 해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
다. 하지만 쉽게 말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유난히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배
가 볼록하게 나온 아이가 바로 나왔
기 때문이다. 왜 배가 볼록하게 나
오고 배꼽이 보이는 배불뚝이가 되
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동네 어른들과 아이들도 길에서
만나면 배가 납산처럼 부른 배불뚝
이 왔구 먼 하는 소리가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더 자랑하며 배
를 더 내밀고 나왔다.
배가 볼록 볼록하게 나와 배만 보
이는 아이가 설움에서 뉘뉘뉘뉘하게
침이 다내야 했던 그 시절에 좋았던



김 중 협
시인 · 수필가

기억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었을까. 그 후 늘
배불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아온
지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당시 국민학교 다닐 때도 정상 나
에게는 배가 나온 아이로 동네에서
나 학교에서 이름처럼 부르는 천진
난감한 아이였다. 이름보다도 더 편
하게 부르는 듯했다. 배를 더 볼록
하게 내밀고 배꼽을 내밀어 보이면
배를 만지고 가는 아이들, 어른들도
배불뚝이 닮았구 하는 소리가 지금
도 들리는 듯하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정장해 비런 갑옷, 또대 친구
들, 어른들은 그때 어린아이처럼 배
볼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배불뚝이는 학교 공부는 하느

마는지 책상 위에 쌓아놓은 책이나
노트는 메인 목각이 있고 선생님께
내주는 숙제는 무엇인지 모르고
학교에 가는 것이 나뉘사이다. 아홉
에 세수하는 등 바는 등 해서 학교
가면 개일 최초의 갖으면서도 항상
웃으면서 학교에 나왔다. 공부는 뒤
에 일이고 노는 것이 하루의 일이
나.
결석을 자주해 그다음 날 학교에
가면 결석한 이유를 물으면 우물쭈
물 하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가
이 핑계 저 핑계 말하면 선생님은
먼저 앞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화초
리로 줄아터 몇 대 때리고 매서운
발을 주셨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사랑의 매인지를 몰랐던

철부지 바브인 듯했다.
배불뚝이는 또래 아이들과 같이
학교에 붙는데 종종 나머지 공부
해야 하는 아이로 늦은 시간까지 남
아서 공부를 하고 온다.
그날도 혼자 터벅터벅 오는데 바
을 입구에서 5~6학년 형들이 배불
뚝이의 배를 가지고 웃고 댔다. 그
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에 형들
과 싸움을 걸었다. 볼록하게 나온
배를 더욱 세게 내밀며 덩배 들었
다. 한참 싸우다 보니 피루성이가
된 채 혼자서 고대고대 소리 질리대
면 길모퉁이에서 울고 있었다.
자금은 배불뚝이는 어디 가고 남
보다 훌쩍한 그루으로 서 있는 노년
이 되었다. 이말 적 그때가 지금은
추억으로 남아 그리울 뿐이다.
아, 그 시절의 사랑과 아들이 더욱
생각나는 오늘이다.

*김중협 수필가는 2025년 '시와노'
신인문학상, 2026년 시제 작품상 수
상, 전북문인협회, 전주문인협회, 전
북아동문학회, 한국신문학인협회 전
북지회, 동심문학회, 전북불교문학
회, 시와노 문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독자제언

여름철, 이륜차 안전모 착용 필수

여름철 이륜차의 운행을 하면서 덥
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이로 인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가 급
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두바퀴 차(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 자
전차)사고 사망사고는 496명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특히 여름철(6월~8월) 사망사고는
다른 계절보다 높은 치명률을 기록했
다. 이륜차 교통사고 중 특히 안전모
의 유무는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이
륜차의 안전모는 차량의 안전띠와 예
어백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
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
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머
리 손상으로 인해 중상을 입을 확률이
더 커진다.
그럼에도 날씨가 덥고 귀찮다는 이

유로 안전모 미착용 운행을 하거나,
안전모를 착용을 하더라도 턱 끈을
잘 조이지 않은 채로 운전하는 경우,
규격에 맞지 않은 안전모를 쓰고 운
행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
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생활용도로 이륜차를 사용하면서 안
전모를 쓰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다.
배달업 종사자보다 착용 비율이 낮았
다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왔다.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모 착용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하며 운행하기 전 안전모부터 꼭 챙기
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안전모
뿐만 아니라 법규를 준수하여 사고에
방해 동참해주길 바란다.
이정우 교황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케데헌’ 관측경 쓰고 일식 구경하는 피서객



12일(현지 시간) 스페인 발렌시아 인근 푸에르토데사군토 해변에서 한 피서객이 케
이팝 데몬 헌터스' 디자인의 관측경을 쓰고 일식 시작 단계의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

사설

윤석열 발언 송치 결정

20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전직
대통령을 지낸 윤석열 씨의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발언과 관
련해, 경찰이 검찰의 반대 의견에
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사건 송
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
수사본부는 윤씨의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윤씨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
선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집사할
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다", "주
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송치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전직 대통령 윤씨
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
결이었다.

재판부는 "아내와 함께 전진법사
를 만난 적 없다", "최측근 겸사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
다"는 대선 후보 토론회 당시 윤
씨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
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전체 맥
락에 기초해 선거인들에게 발언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
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혐의 성립이 어
렵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회신
했다. 검찰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
주가조작 '주조' 이점될 씨를 통
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4천
만 원의 손실을 본 2010년 상반기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
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과 특검 수사 기
간에는 시효가 정지된다.

장윤기 수사 영장심사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규명 중인 검찰과 경찰이 경
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동시에 압수
수색 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당
시 사건을 지휘했던 형사과장에 대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 공안경찰
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모 경정은
법원에 출석했다. 직권남용관리행
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경정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들어가기 전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살
인' 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
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수사팀장의 직속상관이다.
수사팀장은 경찰청 특별수사단 조
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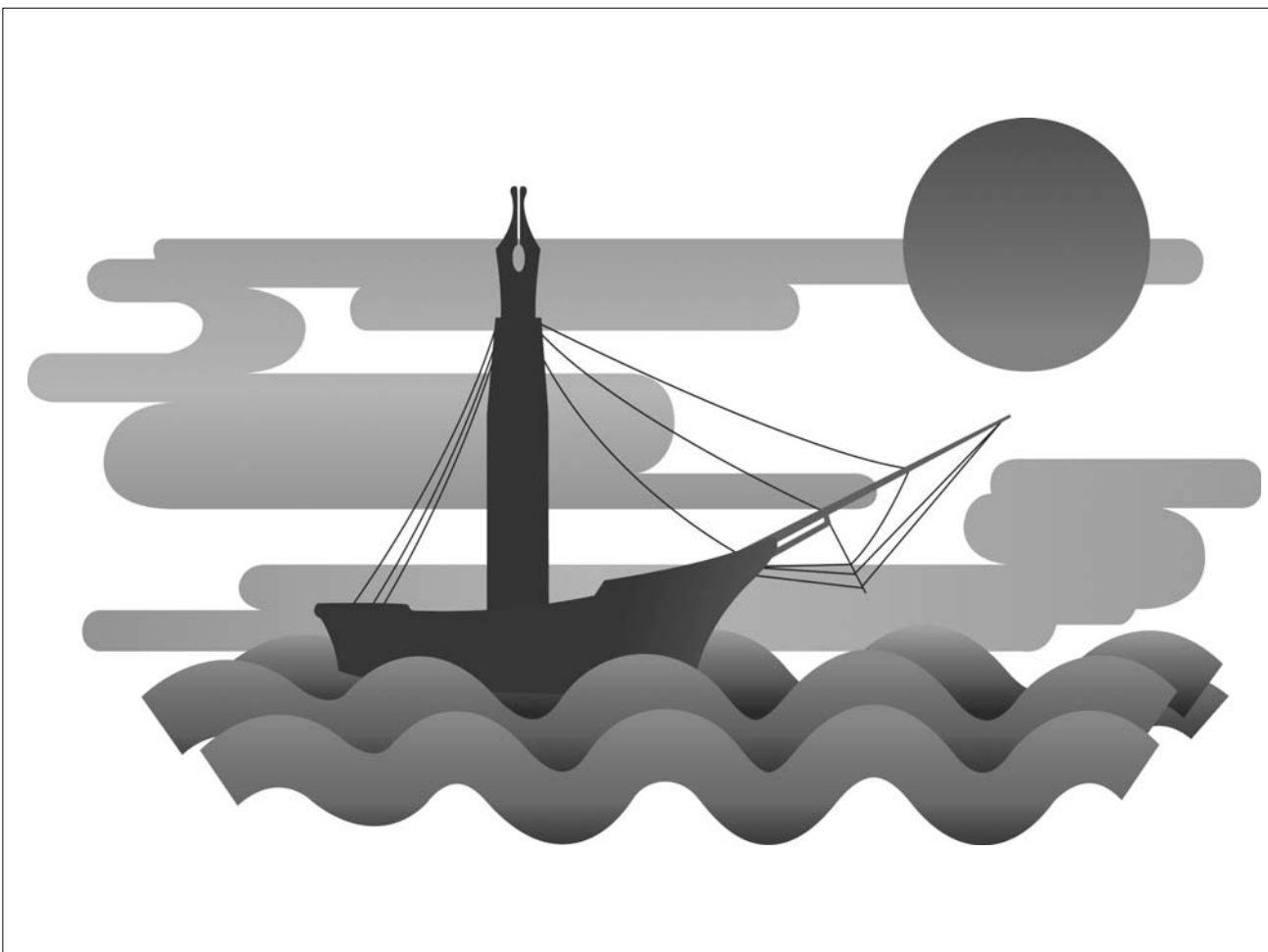
당시 경찰 수사팀원들은 "수사
분리는 국수본의 지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
사단은 형사과정과 같은 혐의로
입건한 공안경찰서장도 조만간 불
러 조사할 계획이다.
광주지검은 경찰의 공무원비밀
누설 등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
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
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
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국수본 강
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각각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
행에 나섰다.
검찰과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와 관련한 전반적인 보고 및 지휘
내용을 확보 중인 가운데, 현재까
지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피의자
로 입건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으
로 전해졌다.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